

보건복지 ISSUE & FOCUS

KIHASA
한국보건사회연구원
Korea Institute for
Health and Social Affairs
www.kihasa.re.kr

제336호 (2017-07)
발행일 2017. 6. 5.
ISSN 2092-7117

발행인 김상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(30147) 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(1~5층) TEL 044)287-8000 FAX 044)287-8052

아동빈곤의 추이와 함의¹⁾



여유진
기초보장연구실장

- 2006~15년 기간 동안 전체 인구 빈곤율은 거의 변함없이 유지되거나 약간 하락한 데 비해 아동빈곤율은 크게 감소함.
- 이러한 아동빈곤의 감소는 아동이 있는 가구의 가구소득 상승,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보육서비스 등 현물이전을 포함한 사회적 이전의 효과 증가, 현재 가난한 혹은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해 빈곤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되는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 연기나 포기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.
- 아동기 빈곤은 장기적·다차원적 영향이 큰 만큼, 빈곤 아동과 가족의 소득 향상을 위한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정책의 적극적 개입과 노력이 요구됨.

1. 들어가며

-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아동빈곤은 다른 연령집단의 빈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 왔음.
 - 이는 아동빈곤의 원인이 아동 자신이 아니라 아동의 부양자, 즉 부모에게서 주로 기인한다는 데 따른 것이기도 하고, 심각한 노인빈곤에 대한 실태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면서 상대적으로 아동빈곤은 우선순위에서 뒤쳐졌던 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.
 - 하지만 아동기의 빈곤과 박탈 경험은 성인기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그리고 다차원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아동빈곤의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인 동시에 정책과제라 할 수 있음.
 - 여기에서는 아동빈곤의 추이와 규모를 추정하고, 최근 아동빈곤율 감소의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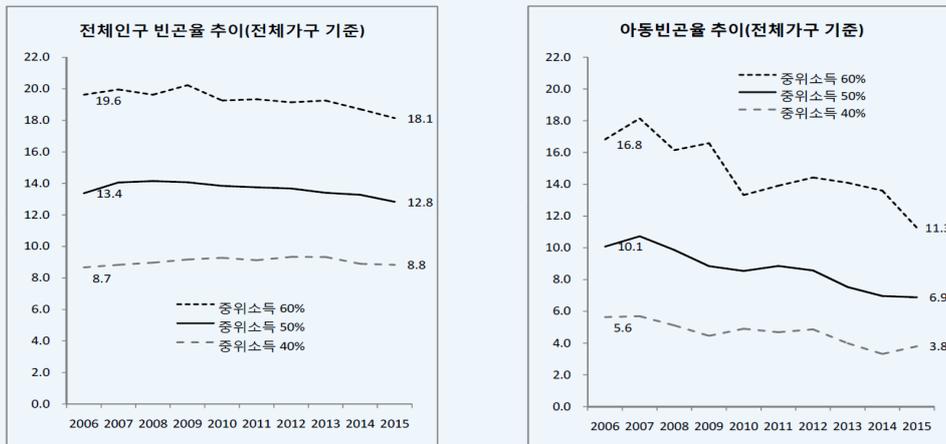
1) 본 원고는 2017년 3월 31일 본원의 주최로 개최된 '아동빈곤포럼'에서 발표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한 것임.

2. 아동빈곤의 추이

- 2006~15년 기간 동안 전체 빈곤율은 거의 변함없이 유지되거나 약간 하락한 데 비해, 아동빈곤율은 큰 폭으로 하락함.
- 특히, 균등화된 중위소득 60% 기준 아동빈곤율은 2006년 16.8%에서 2015년 11.3%로 10여 년간 32.7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
[그림 1] 전체빈곤율과 아동빈곤율 추이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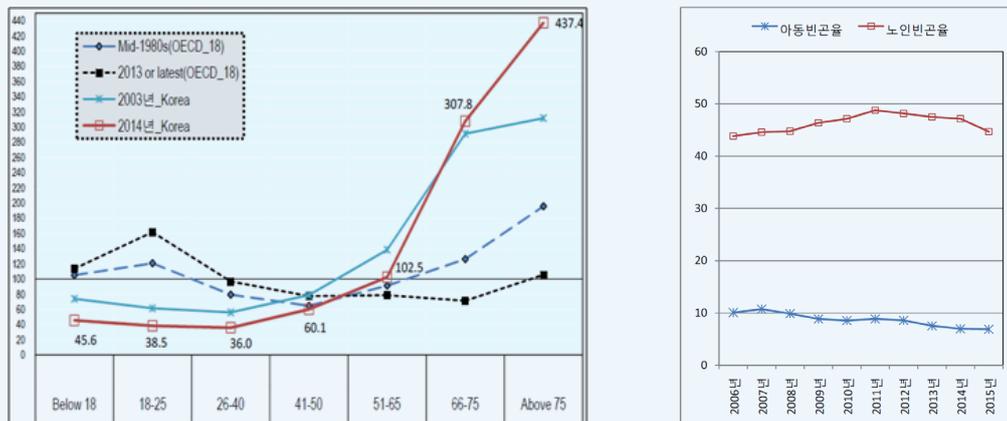


출처: 여유진 등(2016). 『아동의 빈곤예방을 위한 실태연구』. 보건복지부 · 한국보건사회연구원. p.130.

- 연령별로 볼 때, 한국의 아동빈곤율은 평균 빈곤율을 100으로 볼 때 45.6에 불과하여 노인빈곤율은 물론이고 전체빈곤율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.
- 노인빈곤율은 2010년 전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해 오다, 최근 기초연금 도입과 급여 증액 등의 영향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.
- 이에 비해, 아동 빈곤율은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.

[그림 2] 연령별 빈곤위험률과 노인·아동의 빈곤율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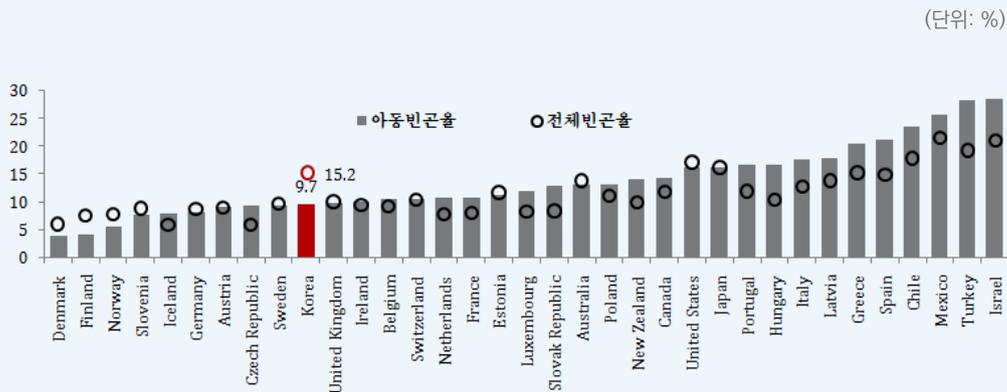


출처: 여유진 등(2016). 『아동의 빈곤예방을 위한 실태연구』. 보건복지부 · 한국보건사회연구원. p.132.

■ 국제적으로 보아서도, 한국의 아동빈곤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.

-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에 제공된 자료를 보면, 2011년 아동빈곤율은 9.7%로 덴마크, 핀란드, 노르웨이, 독일, 스웨덴 등 소위 복지선진국들에 이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의 빈곤율을 보이고 있음. 대부분의 자유주의 복지국가나 남유럽 복지국가 그리고 일본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임.

[그림 3] OECD 국가의 아동빈곤율 비교(중위소득 50% 기준, 2011년)



출처: 여유진 등(2016). 『아동의 빈곤예방을 위한 실태연구』, 보건복지부·한국보건사회연구원, p.135 재인용.

3. 아동빈곤 감소의 원인 진단

■ 왜 한국의 아동빈곤율은 낮은 수준이며, 최근에 더욱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지, 추정 가능한 요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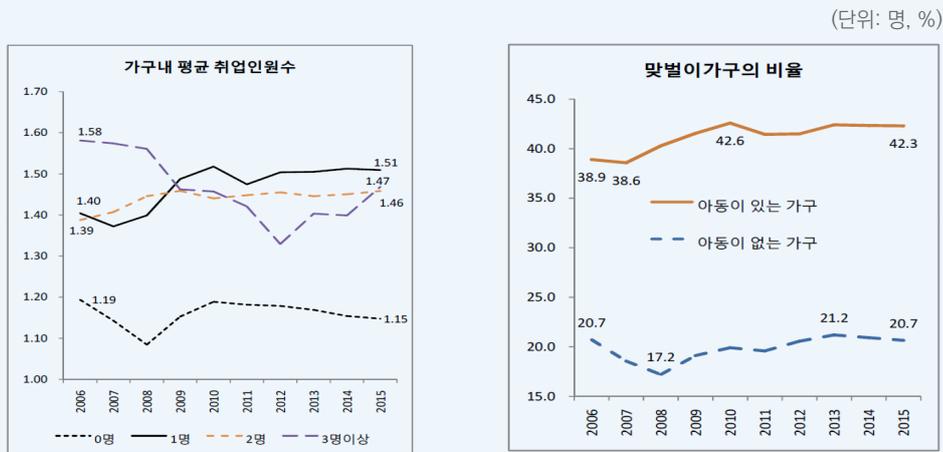
- 첫째, 직접적인 요인으로 아동이 있는 가구의 가구소득 상승을 꼽을 수 있음. 여기에는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인해 노인가구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아동가구의 상대소득이 높아진 결과도 포함될 수 있음.
- 둘째,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이전의 재분배효과(빈곤감소효과)가 커진 결과 또한 빈곤감소의 요인으로 볼 수 있음.
- 셋째, 현재 가난한 혹은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해 빈곤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되는 청년들이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거나 미룬 결과, 즉 한국의 초저출산율과의 상관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해 볼 수 있음.
- 이 세 가지는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 완전히 분리된 효과를 추정하기는 쉽지 않음. 여기서는 한 가지씩 차례로 살펴보고자 함.

■ 첫째, 아동가구 내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 수의 증가와 근로소득 증가

- 앞의 그림에서 보면, 2010년을 전후로 자녀가 1명인 가구뿐 아니라 2명, 3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빈곤율도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. 이 시기를 전후로 아동이 있는 가구 내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의 수가 전체적으로 증가.

- 아동이 1명인 가구의 경우 2006년 1.40명에서 2015년 1.51명으로, 2명인 가구의 경우 1.39명에서 1.47명으로 증가. 3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 1.58명에서 다소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하여 1.46명.
 - 아동이 있는 가구의 맞벌이가구 비율도 동 기간 동안 38.9%에서 42.3%로 증가.
- 가구 내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의 수 혹은 맞벌이가구 비율의 증가가 2010년 전후로 두드러진 것은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가구 소득보전의 필요성 증가와 더불어 이 시기 보육지원의 확대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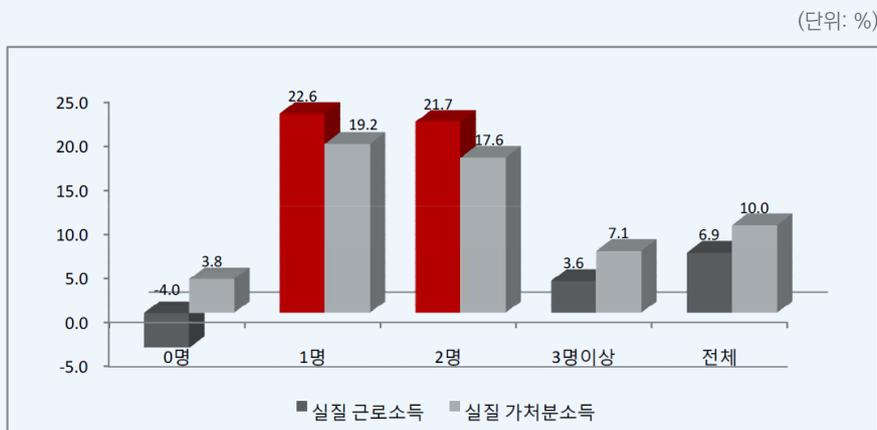
[그림 4] 가구 내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의 수와 맞벌이가구 비율



출처: 여유진 등(2016). 『아동의 빈곤예방을 위한 실태연구』. 보건복지부 · 한국보건사회연구원. p.137.

- 그 결과, 이 시기 동안 아동이 1명인 가구의 실질 근로소득은 22.6%, 2명인 가구의 실질 근로소득은 21.7% 상승하였는데, 이는 아동이 없는 가구의 실질 근로소득이 4% 감소한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임.
-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율이 감소한 직접적인 요인은 가구 근로소득의 증가임을 알 수 있음.

[그림 5] 아동 수별 실질소득 변화 ('06~'15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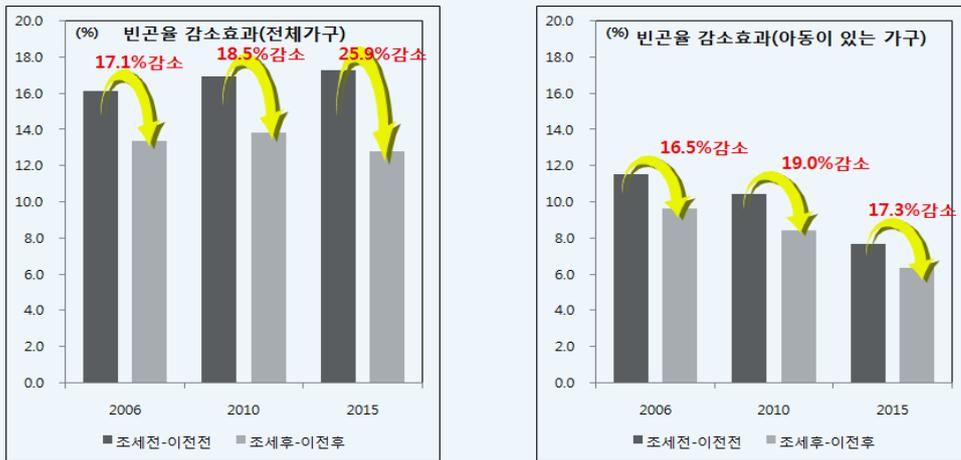
출처: 여유진 등(2016). 『아동의 빈곤예방을 위한 실태연구』. 보건복지부 · 한국보건사회연구원. p.138.

■ 둘째, 현금 사회이전의 빈곤감소효과

- 2006~15년 동안 전체 가구의 현금 사회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는 2006년 17.1% --> 2010년 18.5% --> 2015년 25.9%로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 - 동일한 시기 동안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현금 사회이전의 빈곤감소효과를 살펴보면, 전체 가구에 비해서는 미미하지만 2006년에 비해서는 약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.
- 이와는 별개로,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복지 중 가장 큰 부분은 보육지원 서비스로 이는 현금이전의 효과에서 파악되지 않는 부분임.
 - 보육서비스 확대와 같은 일-가정양립정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, 가구의 경제활동을 증가시킴으로써 근로 소득을 상승시키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음.

[그림 6] 공적이전의 빈곤을 감소 효과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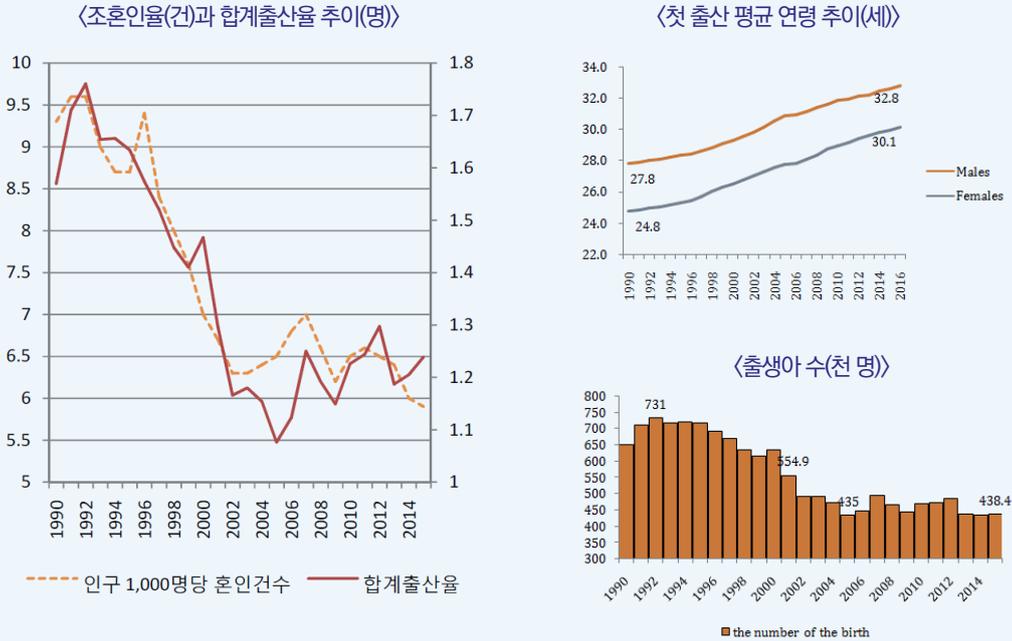


출처: 여유진 등(2016). 『아동의 빈곤예방을 위한 실태연구』, 보건복지부·한국보건사회연구원, p.140.

■ 셋째, 경제위기와 결혼 및 출산의 연기

- 한국에서 1997년 외환위기는 Before crisis와 After crisis라 해도 좋을 만큼 전후(前後) 경제·사회·문화·인구에서의 상당한 균열을 야기함.
 -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,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에 1천 명당 결혼 건수가 9.4명이던 것이 2003년에는 6.3명까지 하락, 합계출산율은 1992년 1.76명에서 2005년 1.08명까지 하락.
 - 1990년 이래 초혼 연령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90년 남자 27.8세, 여자 24.8세이던 것이 2016년에는 남자 32.8세, 여자 30.1세로, 1990년 대비 각각 5.0세, 5.3세 상승하였음.
 - 이와 같이 결혼 건수가 줄고, 평균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, 합계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출생아 수는 급감하여 왔음. 1992년에 73.1만 명이던 출생아 수는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63.5만 명, 2001년 55.5만 명, 2002년 49.2만 명으로 급전직하로 감소

[그림 7] 출산율 관련 통계



자료: 통계청(kosis.kr에서 2017. 3. 25. 인출).

○ 이러한 출산율 감소가 아동빈곤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?

- 아동빈곤율과 합계출산율 간에는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(1990~2015년 둘 간의 $Corr. = -0.5134$).

[그림 8] 아동빈곤율과 합계출산율 간의 관계



자료: 통계청(kosis.kr에서 2017. 3. 25. 인출).

-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, 2014년 청년단독가구의 빈곤율은 11.0%로 이전에 비해 상승. 하지만 나머지 청년가구(아동이 없는 부부, 아동이 1명 혹은 2명인 가구)의 빈곤율은 크게 하락함.
- 외환위기 전후에 나고 자란 세대(현재 18~27세)는 아동기 내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빈곤을 경험. 이에 비해, 외환위기 이후에 태어난 세대(현재 8~17세)는 아동기 동안 빈곤에서 벗어나거나 낮은 빈곤율 속에서 성장. 후자의 경우 주로 저출산 시기에 태어난 아동임.

〈표 1〉 아동과 청년의 빈곤율 (단위: %)

〈청년의 가구 유형별 빈곤율〉

청년가구	2003	2005	2009	2011	2014
단독	9.4	6.9	7.9	7.7	11.0
부부	7.3	10.6	3.6	3.2	2.9
부부+1자녀	6.7	6.4	6.9	4.8	3.0
부부+2자녀	8.0	6.8	6.1	5.3	4.4
한부모+자녀	53.5	54.3	53.9	58.9	49.0

자료: 한국보건사회연구원(각 연도), 국민생활실태조사, 복지욕구조사 원자료.

〈아동의 출생연도별 빈곤율〉

현재연령(17)	출생연도	0-4세	5-9세	10-14세
23-27세	1990-1994	8.6	11.1	11.5
18-22세	1995-1999	10.9	9.7	11.3
13-17세	2000-2004	11.3	9.5	7.1
8-12세	2005-2009	7.6	6.4	-

자료: 통계청(각 연도), 가계동향조사 원자료.

- 요컨대, 외환위기라는 전무후무한 경제·사회적 충격의 여파 속에서 아동·청소년기를 보낸 현재대 청년들이-자이든 타이든-현재의 빈곤상태 혹은 결혼·출산으로 인한 빈곤위험을 최대한 회피하고자 하는 전략을 사용한 결과를 통해 현재의 초저출산과 낮은 아동빈곤율의 원인을 부분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음.

4. 나가며

■ 최근 아동빈곤 실태와 추이가 주는 함의

- 첫째, 아동이 있는 가구의 근로소득 증가가 최근 아동빈곤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에서, 가구 내 성인의 경제활동과 근로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됨.
 - 유럽연합(EU) 국가들이나 미국에서 아동빈곤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부모의 근로능력 제고를 꼽고 있는 것도 동일한 맥락임.
 - 보육과 돌봄 서비스와 더불어 숙련도가 낮거나 경력이 단절된 사람들의 직업훈련, 취업알선, 고용보호와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또는 고용서비스(enabling service)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.
- 둘째, 최근 우리나라의 공적 사회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공적이전의 빈곤감소효과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.
 - 하지만 여전히 공적 사회지출의 상대적 규모나 그것의 재분배효과는 OECD 국가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,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한 현금지원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편임.

- EU에서는 아동빈곤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을 강화해 기본소득으로 나아가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을 정도로 소득보장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고 있음.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동이 있는 가구, 특히 빈곤아동가구에 대한 현금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빈곤율과 빈곤갭을 감소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
- 마지막으로,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은 국제적으로 보아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, 최근 들어 더욱 낮아지는 추세라는 것은 의미 있는 결과임.
 - 하지만 이것이 반가워만 할 일인지는 좀 더 꼼꼼이 따져 볼 필요가 있음. 아동빈곤의 감소가 출산율 감소로 인한 아동인구 감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. 즉, 아동빈곤율이 낮은 것 자체는 평가할 만한 결과지만, 이러한 결과가 만약 오폭세대와 같이 애초에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한 청년세대가 늘고 있거나, 결혼을 했더라도 자녀를 출산할 경우 빈곤해질 것으로 예상돼 산아제한을 한 결과라면 이야기는 또 달라질 수 있음.
 - 이러한 상호작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.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빈곤 아동이 감소하면서 동시에 출산율은 증가하는 방향이기 때문임.

여유진 기초보장연구실장
문의 044-287-8181

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www.kihasa.re.kr

KIHASA
한국보건사회연구원
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